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 송 |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ㄷ-7,12-13

부속 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이승주 대건안드레아 신부 | 청소년국장

| 성령, 바이러스, 청소년

비둘기도 있지만, ‘성령’ 하면 역시 불과 바람이죠. 불과 바람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자유롭고 신비로운 성령의 표상으로 그보다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지만 숨 쉬는 것처럼 크건 작건 어디에나 있는 바람. 물질처럼 보이나 실은 물질이라 할 수 없는,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넘실대는 불. 모두 인간의 언어나 지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성령을 이해하기에 참 관찮은 비유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존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오가는 바이러스입니다. 살아 있는 숙주에 기생할 때는 생물처럼 증식하고 변이하지만 숙주가 없으면 결정화되어 돌처럼 되어버리는, 그러다가도 다시 숙주를 만나면 활성화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세균과 많이 혼동할 정도로 흔하게 여기고,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바이러스가 지금은 전 세계의 지속적인 화제가 되고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한편으로 억울할 법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든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그저 생겨먹은 방식과 기능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인데 말이죠.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한때는 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었었습니다. 넓고 강력한 전파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행복 바이러스나 사랑 바이러스처럼

좋은 것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었는데… 앞으로 바이러스가 긍정적이었던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경계를 넘나들고 어떤 틀로 규정될 수 없는 모호함을 지닌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를 넘나들고 첫 번째 탄생인 육신의 탄생과 두 번째 탄생인 심리적 탄생의 경계에서 불균형과 불안정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인생의 여정 중 가장 성령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열정 어린 영세 초기를 지나 언젠가는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듯 부모님의 보호 아래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던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청소년입니다. 그 질문이 시작되었을 때 무조건 믿으라고 하거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활동 방식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 질문은 광야의 40년처럼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길을 자유롭게 걸으며 의심, 실수, 이탈, 성취, 수정, 실패,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책임지는 법, 인생을 살아가는 법, 하느님을 향하는 법들을 습득하여 그동안 배웠던 가르침과 일치 시켜나갈 때 진정한 탄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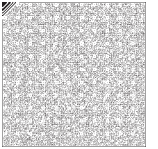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내 곁을 떠나가시는 것만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흘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이수정 데레사 | 경기대학교 교수



진정으로 속죄하는 방법

고해성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가톨릭 신자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성찰(省察)·통회(痛悔)·고백(告白)·보속(補贖)을 거쳐 죄를 용서받는 성사’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성찰이란, 스스로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지은 죄를 세세히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 통회에서는, 하느님 앞에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고백의 과정에서는 하느님의 대리인인 사제에게 숨김없이 죄를 털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속의 과정에서는, 속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사법제도의 재판 과정과도 흡사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의 입증과 함께 자신이 잘못된 바를 세세하게 자백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재판정에서 낱알이 피고인의 잘못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인지 따집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형이 집행되는 단계로 들어서는 데 형을 사는 동안 죄인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며 갇혀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와 교회의 이치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대상이 되었던 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진정 회복이 되었을까요?

고해성사 속 ‘속죄’라는 것이 단순히 통과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감 없이 마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텐데, 이런 잘못에 대한 인정은 자신의 존재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하나 건네지 않으면서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절차가 고해성사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

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교도소 수감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 오류에 빠진 사람들 중 일부는 본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억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구성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단체로 잘못을 외면하고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피와 은폐의 분위기는 더더욱 피해자를 곤경에 빠지게 하며, 그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이 모든 가능성은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마음속의 악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직면하여 통회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을 다하여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용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통회하고 속죄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이 통회와 속죄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해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어머님은이모든일을
마음속에간직하셨다
루카 2:51



김기숙 정혜엘리사벳 | 상도동성당



성령의 은총과 열매

성령의 7가지 은총	
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 •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
통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의 진리에 대한 통찰 •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통찰(존재의 의미 고찰)
식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을 내 삶의 조언자로 모시는 것 •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께 다가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는 힘 •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은총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물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 하느님만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공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을 자녀로서 경외하는 마음 • 타인을 형제자매로 대하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경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는 은총 • 하느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로서의 두려움(양심에 충실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하느님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사랑받는 존재) •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 안에 뿌리내림으로써 우러나는 만족감 •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함
인내	이웃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 • 약점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음
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개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 • 용서와 화해의 바탕 • 한계를 지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선성(善性)을 확인하는 것 • 창조물의 선성(善性)을 보존하려는 노력
성실	나 자신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함의 역동적인 표현 • 하느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봉헌하는 것
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 대범하고 너그럽게 대함 • 하느님 안에서의 쉼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 사랑이 빚어낸 결과 • 욕망을 다스리며 이겨내는 것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주체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다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이 빚어주시는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내 삶의 투신이 있을 때 자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天主保佑” (천주보우, 하느님께서 지켜주십니다)

|  대만 |

찬미 예수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안과 걱정이 앞섰던 이 시기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여기 대만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교구 차원에서 주일 미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본당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주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평일 미사에는 신자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설 연휴 전으로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신속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고 본당 내에서도 대비를 하였습니다. 성당 입구의 성수를 치우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미사 중에도 신자들뿐만 아니라 주례 사제까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의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본당 내의 단체 활동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타오위안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구 내에서는 오래되고 큰 본당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공단지역이 있어서 필리핀, 베트남 신자들의 활동이 따릅니다. 사실 대만에는 대만인 신자들보다 필리핀, 베트남 신자들이 훨씬 많아서 주일이면 필리핀, 베트남 신자들 활동이 더 많은 편입니다.

본당에서 지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왔는지, 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생활에 적응은 했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교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제들이 외

국에서 온 수도회나 선교회 소속이다 보니,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첫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답하면 대부분은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외방선교회 소속이 아니라 서울대교구 소속이라고 답을 하면, 교구 소속 신부가 왜 여기로 선교를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잠깐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은 대만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적응은 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말이 서툰 외국인 신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이겠지만, 때로는 이런 질문이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우리가 이해해 줄게’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만큼 그들도 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대만에 와서 들었던 가장 기뻐던 말은 “대만에 와줘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인 사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수도회나 선교회가 아닌 교구 소속 신부가, 스스로 선교를 지원하여 외국에 나와 여기서 함께 살겠다고 하니, 그것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인사하는 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렇게 나와 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이들에게, 그리고 이곳 교회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신자들의 마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희망을 가집니다.

김재원 베드로샤벨 신부 | 대만 선교

오늘(5월31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5월31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신앙과 인성교육의 기본적 자원인 교리교재 연구 및 보급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은 8월30일에 실시합니다. ‘청소년 주일’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 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주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5년 6월3일 이종국 바오로 신부(31세)
- 1983년 6월1일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29세)
- 2015년 6월7일 임응승 사도요한 신부(93세)
- 2017년 6월6일 최승룡 테오필로 신부(80세)

교구정월일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8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태현 스텔라, 남경우 로무알도, 임지영 켈투르다, 임창혁 크리스토폴, 정동원 요한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재능기부자 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정신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점검에 함께할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6월1일~30일 / 활동기간: 9월~10월
활동분야: 사회복지시설 업무(회계, 노무, 조직, 인사 등) 전반
활동장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사회복지시설(서울전역) / 모집대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문의: 02)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목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일반·편입학 2차 전형 원서접수: 6월1일(월)~11일(목)
전형일: 6월27일(토) / 인터넷(www.jinhakapply.com) 접수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 인원: 00명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상: 국내 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모집기간: 5월25일(월)~6월9일(화)
면접일: 6월12일(금) 19시 / 이메일: dpt6010@catholic.ac.kr
곳: 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문의: 02)2258-7723(<https://welfare.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인간 삶과 문화예술에 담긴 가톨릭 진리와 영성을 본격 연구하는 석사학위과정
곳: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서초구) 내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6월5일(금)까지 접수 / 내이비(추가정보):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전공	음악과 미술, 건축과 역사, 가톨릭 철학과 영성
사목영성전공 (신설)	사목에 필수적인 사회복지와 상담, 조직경영과 갈등관리, 생명, 가톨릭영성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우 04606)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모집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봉사자 모집

대상: 상담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자(여성)
봉사내용: 전화상담(가족·심리) / 문의: 02)990-9360

가톨릭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경영전략·사업기획, 홍보·마케팅, 재무·회계, 법률, IT, 기술·교육 방식 1:1 자문 또는 1:그룹 자문 / 활동대상: 가톨릭사회적경제 조직과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사업자
연중 상시 모집 / 문의: 02)727-2483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www.caritasworld.org)

인내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삶과 회복이 있습니다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 운영 / 041)950-1008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상담·검사: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문의: 02)2258-7720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뽀자비회수녀회)

직원모집

꾸르실료 회관 주방장 모집 / 문의: 02)337-8588

대상: 경협자 우대, 세례받은 지 1년 이상된 교우 1명(비상근 계약직)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조리직) 모집

분야: 사제관 주방 직원 1명(정규직)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6월10일(수)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bck.kr) 문의

가톨릭회관 통신실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및 통신업무(PBX·키폰·네트워크·IP CCTV운영 및 유지보수) 유경험자
인원: 기사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교적 사본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 이메일 문의
6월12일까지 이메일(c-center@catholic.or.kr) 접수

공덕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718-1040

인원: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PC(한글·엑셀)가 능한 교우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6월6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420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5-1) 접수

가회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763-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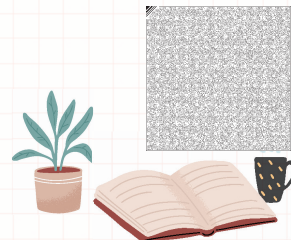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사무경력자 우대) / 근무시작: 7월1일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2차 면접 때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전형(6월5일), 2차 면접(6월14일-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6월5일까지 우편(우 03052,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7) 및 방문 접수

서울대교구청 특수사목사제관(성복동 소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인원: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o@seoul.catholic.kr) 접수
6월14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무는 시간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 예수 성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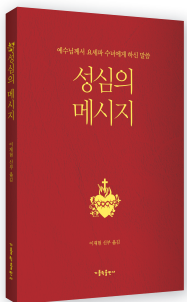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번 예수 성심 성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교황님의 말씀과 매일의 묵상 주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 뵙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강대인 옮김 | 8,800원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365일 묵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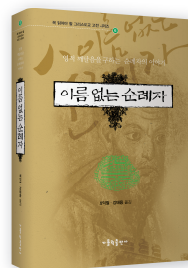
성심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 모음집

이재현 옮김
10,000원

“나의 성심은 완전한 사랑 자체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 성심 수녀회의 요세파 수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엮은 책입니다.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 받는 책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 성심께 의탁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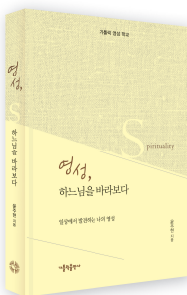
이름 없는 순례자

예수님과 일치를 간구했던 한 순례자의 이야기

저자 미상 지음 | 최익철, 강태용 옮김
14,000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오래 전에 한 순례자가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바치던 ‘예수 기도’입니다. 이름 없는 한 순례자의 모험담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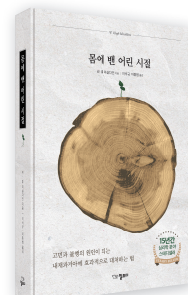


신간 도서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윤주현 지음
15,000원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지만, 막상 영성이 무엇인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례 때에 받은 고유한 ‘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을 찾도록 안내해 줍니다.



신간 도서 몸에 밴 어린 시절(개정판)

고민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내재과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

W. 휴 미실다인 지음 | 이석규, 이종범 옮김
22,000원

15년간 심리학 분야의 스테디셀러였던 《몸에 밴 어린 시절》이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과거에 거쳐 온 어린이의 모습을 뜻하는 ‘내재과거’를 인식함으로써,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또는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774-1784(☎)
753-1784(FAX)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 준비를 위해 대성전 출입을 통제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등에 따라 상기 지침이 주보 발행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자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병자영성체 · 성시간 없습니다 !

◎ 청소년봉사부와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여름캠프는 없을 예정입니다.
초등부 · 중고등부 · 솔봉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5월 18일 ~ 5월 24일 : 1,110,000원)

누계 : 1,531,125,123원

김 화 영 : 1,000,000원 | 익 명 : 100,000원
익 명 : 1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 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 명동대성당 평일 · 주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대성전 개방 시간 ☞ 월~토 : 09:30 ~ 19:00

☞ 주 일 : 07:30 ~ 19:00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되며,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중단됩니다.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 참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18-5/24).....16,003,130
- 주님 승천 대축일 헌금.....8,455,100
- 홍보 주일 2차 헌금.....3,511,000
- 감사헌금 (5/18-5/24).....680,000

고 니콜라오 / 김 마리스텔라 / 김 에스텔
서 안드레아 / 장 파비올라 / 정 소화테레사
최 로사 / 익명(1)